올 국가예산확보 나섰다

황숙주 순창군수, 7600억 규모 국가예산 발굴 사업 보고회 가져

황숙주 순창군수가 올해 최대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황군수는 지난 10일 80여건 7,600억 규모의 국가예산 발굴 사업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는 국가예산확보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국회를 방문한 황군수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면담하며 군 주요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정치권의 적극적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중점을 맞췄다.

국회에 이어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황군수는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 송경주 교부세과장을 만나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재활용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요청했다.

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 10억원은 쌍암농공단지 내 관로 4.5km, 가압장 1동, 배수로 정비 등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쌍암 농공단지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이다.

재활용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 10억원은 공동주택지역 분리배출 취약지 등에 생활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류 폐기물)를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악취해결은 물론 분리 수거율도 높일수 있는 사업이다.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클린순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성이 큰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

60개 마을 찾아… 경운기 · 관리기 · 방제기 · 예초기 등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원활한 농작업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기계수리가 어려운 지역인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총 60개 마을을 찾아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중점 수리대상으로 연중 사용 횟수가 많은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를 중심으로 수리를 하게되며, 특히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지원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리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직접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요령과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알린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야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경광등이 미부착되거나 오래된 표시등은 경광등을 부착해 전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농기계순회수리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화(063-650-514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기센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추진단 구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관내 지역농협(남원, 춘향골, 운봉, 지리산)으로부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단(이하 항공방제 추진단) 구성 명단을 넘겨받았다.

이는 2017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이하 항공방제사업)의 본격 추진을 의미하는데, 항공방제 추진단은 남원시 4개 농협의 경제상무와 실무진 그리고 단지장을 포함, 총 12명으로 결성되어 있다.

앞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주축으로 항공방제사업 진행에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이 결정된다.

남원시의 이번 항공방제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사업과 더불어 벼 병해충 방제에 기여하기 위한 남원시의 중점 추진사업에 해당한다.

올해 항공방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이앙 전 육묘상 처리제의 초기 방제에 더해 출수기 방제까지 이중의 방어벽이 구축되어 벼 병해충 공동방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남원의 벼 재배 농업인은 특별한 돌발사항이 없는 한 2회의 방제만으로 사실상 본답 방제를 생략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방제사업 예상면적은 7,430ha로 이는 무인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방제 면적 중 국내 최고 방제면적에 해당한다. 방제 실시기간은 7월 말~8월 초가 된다. 사업 추진방식은 남원 4개 지역농협에 대행하는 방식으로, 앞서 언급된 항공방제 추진단이 약제 선정, 항공방제업체 선정, 방제 확인 등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회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문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대표위원으로 이성재 의원,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학운, 안기선 임실군청 퇴직공무원을 각각 선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육군 35사단, 예비군 도시락 품평회

신청업체 2개소 위생상태 · 가용능력 · 시설규모 등 점검

육군 35사단은 예비군 급식 질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예비군 도시락 품평회를 개최하고 2017년 예비군 급식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국군복지단에서 결정하던 예비군 급식업체 선정업무가 해당지역 향토사단으로 위임됨에 따라 사단은 급식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업체공고에 이어 관·군 합동점검팀을 운영해 신청업체 2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가용능력, 시설규모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17일 김경수 사단장을 비롯해 주요지위자, 병영식당 조리실장, 전역을 앞둔 용사 등 30여 명이 도시락 품평회에 참여해 도시락 시식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예비군 급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황성하(중령) 동원참모는 "예비군 급식은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훈련성과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수한 급식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단은 예비군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메뉴회의, 품평회, 합동위생점검, 예비군 설문작성 등을 통해 급식 질 향상과 식중독 사고예방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예비군 교육훈련 간 중식으로 제공되는 도시락은 개당 6천원으로 1식 7찬에 국, 후식, 물이 제공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노인복지관 노인자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자살률'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실군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7일 임실군과 임실군 노인복지관·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은 노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전체 자살사망자 중 36%를 차지하는 노인비율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사례발굴, 관리, 교육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 1회 방문과 전화 연락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사례발굴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은 기본돌봄사업과 연계해 웃음치료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내 노인복지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자살 위기대응을 비롯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민 군수는 "어르신의 무병장수 100세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맞아 효심행정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6개 지역(성수, 오수, 삼계, 관촌, 지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모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고창군, 황토멜론 육성 업무 협약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명품 황토멜론 육성을 위한 현장 실증과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협약 내용은 멜론안정생산을 위한 접목재배 효과 구명과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작은멜론 생산을 위한 줄기 유인방법 선발을 위한 실증 협약이다.

한편 고창군은 소과종 멜론, 문양멜론, 희귀멜론 생산, 수확체험 등을 통한 6차 산업과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산불예방 정책 추진

남원시는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산불의 주 원인인 농산폐기물, 논·밭두렁을 마을 공동으로 태우는 산불예방 정책을 2월 한 달 동안 추진한다.

산불원인 물질 사전제거 작업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는 작업으로, 마을주민, 산불전문진화대원, 산불감시원이 합동으로 공동소각 하는 효과적인 산불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봄철 무분별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겨울내 방치된 농산폐기물 등을 개별적으로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산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계절 밥상 교육 '호응'

순창군이 식생활 변화 유도를 위한 계절밥상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회(회장 김미옥)와 순창군 음식연구회(회장 홍진자)를 주축이 되어 지난 2월 13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강당 및 실습실에서 진행됐으며 지난 17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순창 계절 농산물을 활용한 순창식 계절건강밥상 요리 정착과 유기농 텃밭을 활용한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식문화 개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사로는 한식대첩에 출연하여 전라북도 음식의 우수성과 그 맛을 널리 알린 우순덕 음식 명인이 참여해 순창만의 고유한 계절건강밥상을 만들고 순창에서 건강밥상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 교육결과를 세계음식 박람회 참가 및 지역대표 음식 개발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